

함께하는 복음 묵상

요한 20, 19-31 (2025/4/27, 부활 제2주일, 하느님의 자비주일)

토마스 사도에 대해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증거를 볼 때까지 의심 많은 사람, 증거를 볼 때까지 믿지 않고 고집이 센 사람... 그러나 토마스 사도의 이 모습 덕분에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새로운 가르침을 얻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토마스 사도의 의심으로 다른 제자들 또한 예수님의 옆구리와 손의 상처를 직접 보고 예수님의 부활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토마스 사도의 의심마저 당신을 향한 신앙의 도구로 사용하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토마스 사도가 예수님의 옆구리와 손바닥의 상처를 보여 달라고 한 모습은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들도 생각해 볼만한 선교의 새로운 모습이 됩니다.

사람들은 입에서만 달콤한 말, 허황된 약속은 믿지 않습니다. 달콤한 말이 올바른 행동으로 실천될 때 사람들은 움직이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의 증거자로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스스로 신앙의 모범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만약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우리들이 교회 안에서 불화로 분열한다면 신자가 아닌 다른 사람들이 어찌 그리스도를 소중하게 여길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우리들을 바라보며 그리스도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바라볼 수 없어도 그분의 자녀인 우리들을 통해서 그분을 믿고 따라나설 이웃들과의 미래를 희망하며 부활 팔일 축제의 마무리도 기쁨 안에서 함께 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삶을 들여다 보고 나누기

오늘의 말씀 안에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아래의 질문에 대한 자신만의 묵상을 해보고 같이 나누시길 권장합니다.

- 1) 토마스처럼 살아계신 하느님을 의심할 때가 있다면, 어떠한 경우에 그런 생각을 했을까요?
- 2)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질 수 없어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굳건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